

“국민 웃게 하는 적극행정,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 주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국민 심사 반영 수상작 선정

국방부가 현장에서 모범이 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국방부는 22일 “박재민 차관 주재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동·창의·혁신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안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특히 시행 2년째인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문가 심사방식을 보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도록 바꿨다. 또 지난해 한 번 열었던 대회를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 개최해 국민이 국방정책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69건의 사례가 출품됐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린 가운데 박재민 국방부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다. 국방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심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심사 결과를 합

산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회를 주관한 박 차관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지금,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 행정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크고 작은 실천과 노력을 이어간다면 우리 군이 한층 더 두터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22일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영웅’ 윌리엄 해밀턴 쇼 해군대위 70주기 추모식에서 문정일 해군발전협회장이 참배하고 있다.

해군발전협회 제공

“한국은 나의 조국” 자원 입대 6·25참전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70주기 추모행사

(사)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는 22일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6·25전쟁 영웅’ 윌리엄 해밀턴 쇼 해군대위의 70주기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정일 해군발전협회장,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이성춘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주요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쇼 대위는 1922년 평양에서 한국에 파견된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얼 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밟던 중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

국은 나의 조국’이라며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으로서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 쇼 대위는 미 해병대 5연대에 배속돼 같은 해 9월 22일 서울수복작전 중 은평구 녹번리 전투에서 전사했다.

문 협회장은 추모사에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쇼 대위님의 넋을 기린다”고 경의를 표하며 “그가 남긴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노성수 기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에 유동준 부이사관 승진 임용

국방부는 22일 군사시설 기획관 전담 직무대리 유동준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해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 직위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기획관은 군사시설 정책·계획 수립, 건설·이전·유지·보수 관리, 군 주거 정책 수립, 군 환경 및 소음보상 정책·계획 수립 등 국방 시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 직위다.



유 국장은 카이스트(KAIST)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2007년 9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시설기획과장, 주한미군기지가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방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했다. 맹수열 기자

박삼득 보훈처장, 폭우 피해 참전유공자 위문

“한가위 전 복구 이뤄져 참 다행”
보훈처, 45개 가구 주택보수 지원

박삼득 보훈처장이 한가위를 앞두고 폭우로 피해를 본 참전유공자를 직접 찾아가는 민생 행보를 펼쳤다.

박 처장은 22일 충북 담양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이영제(88) 옹의 집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다.

이 옹은 6·25 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참전, 조국을 위해 헌신했었다. 그는 지난 8월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과 마당이 크게 침수돼 최근 복구를 마쳤다.

보훈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보훈가족을 돕기 위해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피해가구 현황을 파악했다.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45개 가구를 선정, 도배·장판 교체 및 지붕 보수 등 주택복구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감을 제공,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얻었다.



박삼득(오른쪽) 국가보훈처장이 22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뒤 집을 복구한 참전유공자 이영제 옹의 자택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훈처 제공

박 처장은 복구 현장을 둘러본 뒤 “추석 전 복구가 이뤄져 참 다행”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가 자택에

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30초 감사 페르시아 우화

페르시아의 한 부자가 하인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갑자기 사색이 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인은 다급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테헤란으로 도망치게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빌려주시시오. 오늘 밤 안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인이 떠난 뒤에 죽음의 신이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대는 내 하인을 위협했는가?” “위험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이 들려준 페르시아 우화입니다. 인생의 역경도 회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당히 맞설 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지요? 감사경영연구소 소장 정지환

국방·안보의 모든 것
KOOKBANG.dema.kr
인트라넷 kdd.dema.mnd.mil